
관상동맥용 풍선스텐트를 이용한 중뇌동맥 협착 치료

아주대학교의료원 진단방사선과

이재경, 이성영, 임진혁, 이광현

목 적 : 중뇌동맥협착(Middle Cerebral Artery Stenosis)에 의한 일과성뇌허혈 발작(Transient cerebral Ischemic Attack)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는 환자를 관상동맥용 풍선 스텐트(coronary balloon stent)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치료하여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대상은 일과성뇌허혈 발작(TIA)을 일으키는 환자로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촬영(MR), 핵의학검사(RI), 뇌혈관촬영(cerebral angiography) 모두 국소적인 일과성뇌허혈(TIA)로 판명된 환자 3명(남자 2명, 여자 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방법은 femoral artery를 puncture 하여 6.0F guiding catheter의 tip을 intenal carotid artery에 위치 시킨 후 micro infuson catheter와 guide wire로 중뇌동맥협착(middle cerebral artery stenosis)부위를 지나 micro infusion catheter를 위치시키고 extra support guide wire로 교환(exchange)하여 관상동맥용 풍선 스텐트(coronary balloon stent)를 협착(stenosis)부위까지 이동하여 stenting 하였다.

결 과 : 일과성뇌허혈 발작(TIA)을 일으키는 환자의 중뇌동맥 협착(MCA stenosis, M1) 부위에 관상동맥용 스텐트(coronary balloon stent)를 안전하게 stenting 하였으며 1년의 추적검사기간동안 stent의 이동이나 뇌혈류량의 감소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으며 뇌허혈 발작(TIA)은 보이지 않았다.

결 론 : 그동안은 중뇌동맥 협착(MCA stenosis, M1)에 의한 일과성 뇌허혈 발작(TIA) 환자의 치료는 항응고제 투여나 재활 치료에 의존하고 stenting은 높은 위험성(high risk)과 협착 부위까지 Tracking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작고(small), 유연한(flexible)한 관상동맥용 스텐트(coronary balloon stent)의 개발로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중뇌동맥의 협착(MCA stenosis)의 치료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방법이 뇌허혈 발작(TIA)을 장기간 예방할 수 있을지, 안전성 면에서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어떤 결과를 보일지는 장기간 추적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